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답사

존경하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각하 내외분과 카자흐스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이곳 아스타나에 도착해서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중추국가인 카자흐스탄의 활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하께서 추진해 온 '카자흐스탄 2030 비전' 과 '산업혁신 성장전략' 이 거두고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각하의 지도력과 카자흐스탄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각하께서 작년 11월 방한한 이후 열 달 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역량이 무려 87%나 늘었습니다. 올해는 58% 늘어났습니다. 양국 경제의 잠재력이나 상호보완성을 생각하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 틀림 없습니다.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과 경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자원과 우수한 인력이 합쳐지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중심국가로, 대한민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을 한결같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중앙아시아 역내 안보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카자흐스탄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끝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10만여명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내외분의 건강과 양국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